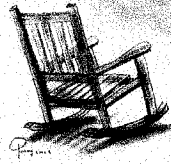


◀기쁜 우리 날들▶ 보고 싶어지는 것들

김 성 국



얼음짱 밑으로 흐르는 물
 눈물 흘리며 헤어지던 그녀의 그 모습
 우표 옆에 나란히 크리스마스 썸 붙여진 편지
 땡땡 거리며 처음 배울 때 쓰던 싸구려 기타
 내 이름 불러주는 여자 동창생
 아버지의 독일제 면도칼

화음 잘 넣어 주던 누이의 노래
 잊어버릴까 줄로 묶어 끼던 병어리 장갑
 어머니가 퍼 주신 밥 한 그릇
 참새 발자국 찍힌 눈 길
 겨울 구슬치기에 튼 손
 불 통통한 처녀시절 아내 증명사진
 일찍 와서 문을 열라며 선생님이 주신 교실 열쇠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교가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쓰는 도중 잉크 다 떨어져가는 모나미 볼펜
 달력으로 겉표지 쓴 교과서
 교미중에 붙어있는 두 마리 개
 아들의 젓 비린내
 강대상 옆까지 채워진 시골교회 부흥회

내 마지막 날에는
 여기에 몇 개만
 더해지면 될 터인데
 나는
 오늘도
 마지막 날 떠오르지 않은 것들에
 목숨 걸고 속절없이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땐 그랬지 ▶ 푸에블로호 피랍

세계가 이념의 냉전으로 양분되어있던 시절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으로 피랍되었습니다. 그때 동해상으로 출동한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덕분에 그렇게 큰 배가 있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나포된 승무원들이 손을 들고 북한 항구에 내리는 이 한 장의 사진에는 강대국 미국은 상한 자존심으로, 작은 나라 북한은 백성들을 미국과의 대결로 유도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9권 3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9월 16일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내가 쓰여지게 해주소서

작자미상

나를
 거룩한 백성
 소유된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여..

전세계인을 상대로 사역하려 들기보다
 가족에게서부터
 나의 사역이 시작되게 해주소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기 앞서
 "가정이 나의 교구다"라고
 밀할 수 있게 하소서.

가족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며
 가족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나 자신이 먼저 배움으로
 그들을 이끌게 해주소서.

가족에게 물질적 풍요를 안겨 주기보다
 영적인 부요를 전해 주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의와 진리를 위한
 고난의 길을 격려하게 해주소서.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당신을 위한다고 떠벌리기에 앞서
 아무 희생이 없어도 좋은
 그리스도께 위탁하는
 단 한마디의 기도로
 가족을 도울 수 있게 해주소서.
 나로 하여금 많은 일보다
 옳은 일에 관심 갖게 하시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소하게 여겨질지라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내가 쓰여지게 해주소서.

다시 구하옵나니
 내가 바라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내가 되어
 거룩한 백성
 소유된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해주소서.



◀말씀따라 행하기▶

눈에 보아서 좋은
 소동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므로
 광야를 택하는 백성이 되자

◀인품따라 행하기▶

딸의 결혼식 날
 아버지와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딸의 옆에 서있는
 아버지가 되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44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5(이사야 35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찬 송 Hymn	457장	다 같이
기 도 Pray		이규임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5:22-43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나 혼자만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10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매주 허락되는 재정가운데 건축헌금에 보태지길 소망합니다.
갈보리 제단에 허락되고 계획된 성전을 기대하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성전건축헌금 드린 교우의 헌금봉투에서-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5,404 + US \$1,000 총액:\$ 388,047.70

◆9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주 차	안 내
2	노은숙	*최현철서재오 향촌직	<현관> 김순자 노은숙
9	이광희		<성전입구> 임혜자
16	이규임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23	이금선		
30	이재영		

◆9월의 교회력◆

주 일	모임 행사
2	정기구역예배(7)
9	권사기도회(13)
16	
23	구역장, 인도자(28)
30	이삭줍기주일 선교회월례회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 위해 5분 매일 교회 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수요 7:00 pm

- 1.교우소식
*감기가 기승이는 계절인지 여러 교우들께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생각으로 지금도 감기 들면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풀어먹고는 땀 한번 내곤합니다. 쾌유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새주소> 원성호,김재연 집사 ☎444-7831. 3A Tye Rd. Hillcrest
2. 『성문밖 주일』:다음주일은 성문 밖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일년 내내 받고 있는 은혜가 많은데 1년에 겨우 한 번 한 주일만 우리의 헌금을 교회 밖을 향해 드리면서 왜 보란 듯 우쭐대고 싶어지는지요! 언젠가 돼야 주님 보시기에 순수함이 될지 멀기만 한 믿음입니다. 올해는 북한의 내 자녀들 또래 아이들이 북풍 한 겨울을 조금 따뜻하게 덮고 잠 들 수 있도록 담요를 사서 보내겠습니다.
- 3.학생부 수련회 <일시> 21일(금)-23일(주일)
*서로 말씀을 공부하고 또래와 우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어느 때 보다 즐겁고 유익한 수련회입니다.
- 4.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 찬양과 말씀과 기도
*날이 곳으면 곳은 데로 훈훈한 봄기운 있으면 따스함을 느끼며 수요일 밤을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 5.미주한인장로회 뉴질랜드 정기노회 <17일(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착한 시인들▶ 동백 언덕에서 양중해

십년 뒤에
동백언덕에 갔더니
동백꽃은 예전대로 붉게 피었구나
전에 왔던 얼굴 기억 해 두었다가
어찌 혼자 왔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것이 아닌가?

그렇고 그렇더라고 했더니
어찌 그럴 수가
어찌 그럴 수가
슬픈 것은 나인데
동백꽃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트린다

십년전에
내가 동백언덕을 찾아가던 사연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동백꽃들은 이미 알고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더구나

붉은 색은 찌릿한 사랑을 한 사람
들에게는 화사한 색으로, 그리워
가슴이 아린 사람에게는 그리움이
상처가 된 색깔입니다.

가슴 붉히는 사연들을 묻고 살다
가 어느 날은 꽃 앞에서 보십시오.
아픈 사연은 아파서 붉어지고
따뜻한 사연은 아름다워 붉어진
기억들이 살아나 행복해집니다.

교우께서 나이 헤아리며 살아가다
울컥 소녀의 마음으로 다가온 감
동 있는 시 한편 있어 전해 주셨
습니다.